

SunYoung Park's Thought of the Religious Education

Jinho Ko
Donggu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igious education thought of the late professor SunYoung Park, the first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KARES). The goal to be revealed in this article is to specifically evaluate professor Park's biographical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and achievements of his studies.

[Contents]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is composed three parts. The first is prof. Park's biography, who shared secular with a monk. The Second is the characteristic of his studies based on Buddhism and Education. Third third is the evaluation of his academic achievements.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rofessor SunYoung Park proposed Buddhistic Education in a new field of education at the early times of 1980's in Korean Academism. And so, his viewpoints of religious education attempted to create a typical model of the oriental education through acceptance of various religions and studies, centering on Buddhism. His religious education can be evaluated as providing a kind of typical model that shows the possibility of joining religion and education.

[Keywords] SunYoung Park, Buddhistic education, Buddhism, Religious educa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 (KASRE)

* **Corresponding author** Jinho Ko (Emeritus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mail : kojinho@dongguk.edu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열로(悅路) 박선영의 종교 교육사상

고진호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요 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한국 종교교육학회 창립자 열로(悅路) 박선영(1941-2018)의 종교교육 사상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기초해, 박 교수의 전기 (傳記)와 학문적 업적 및 특징과 과제를 탐색했다.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동국대학교 교육학과에 재직했던 박 교수와 생애에 대한 기술 그의 연구 업적, 후학들에게 남긴 과제로 내용을 구성했다. 첫째 부분인 박 교수의 생애에 대한 부분은 그의 인간적 측면, 대학인으로서 살아온 여정, 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적 인연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연구업적 부분은 그의 연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연구 업적과 학문적 특징에 대해 기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부분은 그가 미처 다하지 못하고 남겨 놓은 연구 과제를 기술하였다.

[결론] 박 교수의 최대 업적은 한국종교교육학회를 창립하여 한국 종교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박 교수는 오랫동안 학회 회장으로 봉직하면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 양면 노력과 헌신을 다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헌신으로 한국종교교육학회는 올해(2025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명실공히 한국 인문학 분야의 중견학회로서 중추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박 교수는 학문적 차원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불교와 교육의 학문적 연계를 통해 불교교육학을 창안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자신이 추가하는 종교에 기반 한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연찬 과정을 통해서 박선영 교수는 한국 종교교육학을 정립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주제어] 열로(悅路) 박선영, 불교교육학, 불교, 종교교육학, 한국종교교육학회

I. 서론

이 논문은 한국종교교육학회 창립자인 열로(悅路) 박선영(이하 박 교수)의 종교교육사상에 대한 논의의 글이다. 한 학자가 평생 추구한 학문과 사상을 단 한 편의 논문으로 기술한다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필자는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필자는 학부 시절부터 박선영 교수와 오랫동안의 인연이 있었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학문적 행적을 되짚어 공유하는 것도 그의 학은(學恩)에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가 교육학과 종교학 분야에 학문적 눈을 뜬 이후 같은 대학 학과에 재직했던 동료 교수인 동시에 은사인 그의 학문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도 조금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열로(悅路) 박선영은 한국종교교육학회(이하 학회)를 창립하여, 이 분야의 학문을 정립시킨 공로자이다. 그는 학회 창립과 동시에 초대 회장에 취임하고, 회장직을 5회 연임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과 헌신, 노력이 오늘날까지 한국의 종교교육학은 명맥을 유지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박 교수의 학회 회장으로서의 지도력 발휘에는 그의 카리스마, 다양한 종교적 배경으로 구성된 학회 구성원들과의 친화력, 그리고 그의 재정적인 헌신이 밑받침되었다. 올해 학회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지만, 박 교수를 잊지 못하고,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의 학문적 기여와 함께 학회에 대한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내용은 열로(悅路) 박선영의 종교교육학적 사상을 이해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한 학자의 학문이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傳記)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박 교수의 경우는 그의 굴곡 많은 인생행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반인들과는 독특한 삶의 궤적을 영위했고, 이러한 삶의 궤적들이 그의 학문의 방향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이 논문에서 박 교수의 남다른 삶의 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의도 때문이다.

한 학자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그의 연구 업적은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 점에서 이 연구의 두 번째 기술 부분에서 박 교수의 연구 업적을 기술하고자 한다. 이 글의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그의 학문에 대한 평가와 그가 후학들에게 남겨 놓은 학문적 과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박 교수는 말년에 지병으로 인해 학문적, 교육적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다. 만일 그가 인생 후반기에도 정상적인 학문적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그의 학문적 체계와 사상이 보다 정교하고, 심오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가 남겨 놓은 과제 부분은 박 교수의 기존 연구 업적에 기초하여 연구자 나름의 학문적 추정과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가 미처 다하지 못하고 후학들에게 남겨 놓은 학문적 과제를 주제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II. 전기적 이해¹⁾

1. 어린 시절 : 동진출가

한국 종교교육학회 창립자 열로(悅路) 박선영(1941-2018)(이하 박 교수)의 고향은 충남 예산이다. 어린 시절 그에게는 특별한 가정사가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부친에 대해서는 생전에 박 교수가 거의 언급한 적이 없어 잘 알 수는 없다. 다만 그의 부친은 모친과 일찍 이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모친은 어린 박 교수와 함께 수덕사 비구니로 있었던 듯하다. 그의 모친이 박 교수의 어린 시절 그를 절에서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수덕사에 동진출가(童眞出家) 했다. 동진출가는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혼자 출가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당시 박 교수는 가정 형편상 그의 모친과 함께 절에 머물러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는 절에 머물면서, 고향 예산에서 국민학교[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이후 대전고에 입학했다. 그에 의하면, 대전고에 한 번 진학했다가 사정이 있어 못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절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박 교수는 어린 시절에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절에서 자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절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레 불교 의례와 목탁 치는 법, 염불, 참선 등을 배웠다고 한다. 또한 당시 탁발(托鉢)을 통해 하심(下心)의 도(道)를 깨우치기도 했다고 한다. 박 교수는 절에서 소소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기에, 간단한 의복 수선과 요리 기술, 농작물 짓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고 한다.

박 교수는 누구나 어려웠던 시절 국수를 점심 끼니로 먹을 수 있었던 곳은 인근 마을에서 자신이 살던 절[수덕사]밖에는 없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그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자주 절에서 염불을 했다고 한다. 본인의 염불을 잘해 용돈벌이도 간혹 했고, 18-9살 무렵 어린 나이에 두어 차례인가 절에서 치러지는 혼례에 주례를 서기도 했다고 한다. 한번 다니고 그만두었던 대전고는 다음 해 재시험 후 진학했는데, 박 교수는 명문 대전고를 두 번이나 시험해서 합격한 사람은 아마도 자신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랑스러워 말하곤 했다.

박 교수는 그의 모친인 일안(一安) 스님과 6.25 당시 사별하게 되었다. 모친과의 이별은 인간적인 비애의 측면이 크다. 그의 모친은 비구니계를 받아 출가한 분이라기보다는 가정 형편상 절에 머물면서, 스님이 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박 교수의 어머니는 어린 박 교수를 홀로 이 세상에 남겨 놓고 이 세상을 하직해야만 했는데, 당시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는 미루어 짐작이 간다.

1) 이 장은 주로 필자가 본 박선영 교수의 삶과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등에 기초하여 기술했다. 확인을 위한 부분은 그의 저술(Park 1981; 1983 등)과 「법보신문」과 「불교평론」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였다.

박 교수는 고교 졸업 후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했고, 당시 대학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고 한다. 필자는 한 때 그가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는 말이 그를 미화하는 풍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일 필자가 학과 조교로 근무할 당시 그의 연구실에서 모든 과목이 A+로 기록된 학부 시절 성적표를 보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박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대학 진학 시에도 타 대학 법대에 진학을 권유 받았지만, 본인의 뜻에 따라 불교학과에 입학했다고 한다. 아마도 당시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종교교육학회를 창립 발전시키고, 학회 회원들과의 깊은 학문적 인연을 맺기 위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2. 중장년시절 : 동국대 교수 재직

연구자가 열로(悅路) 박선영을 처음 만난 것은 1977년 3월 2일 학과 단위 오리엔테이션 장(동국대 사범대학 J201강의실)에서였다. 대학 신입생인 내가 그를 만났을 때는 그는 반승반속(半僧半俗)의 상태였다. 그는 강의실 한쪽 편에 다소 초라한 행색이기는 했으나, 얌전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은 그가 교수로 부임한 첫날이었다. 박 교수는 동국대 교수 부임 전 오랫동안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불교 담당 교법사를 지냈고 학생과장을 지낸 경력도 지니고 있었다. 당시 학과장의 안내로 자신의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보인 그의 눈빛에는 어딘지 모를 결연함과 자신감이 배어있었다. 연구자는 당시 박 교수의 첫인상은 학자나 교수라기보다는 교사나 승려의 풍모가 더 강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박 교수는 그날 연구자의 학년 담당 지도교수가 되었고, 이날을 시발점으로 연구자와 그와의 오랜 인연도 시작되었다.

교수 부임 후에도 박 교수는 매우 정열적으로 연구와 학생 지도에 몰두했다. 2-3일 걸려 100매 이상의 친필 원고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한 제자들 앞에서 기염을 토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이와 같은 박 교수의 모습은 당시 막연하게 학자를 꿈꾸고 있었던 연구자에게는 강렬한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 있다. 원고지에 적힌 특유의 강건한 서체 그리고 무수한 퇴고의 흔적은 전날 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학문적 의지를 불태웠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박 교수를 만날 때마다 본 충혈 된 그의 눈동자가 어느 때는 오히려 맑게 빛나 보이기까지 했다. 당시 그의 연구실에는 동서양의 수 많은 책들이 가득 있었다. 어느 책이든 펼쳐보면 그 어진 줄, 행간과 여백에 작성된 코멘트들이 그 책을 이미 정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대학 교수 부임 후 약 3년이 지나 박 교수는 동국대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자를 포함한 제자들도 참석하여, 동국대 중앙정원(팔정도)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축하를 드렸다. 당시 연구자는 최소한 박 교수 정도의 학문적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박 교수는 학부 수업에서 한국교육사, 동양교육철학, 한문 원전강독 등을 담당했다. 그는 학

생 지도에 지나칠 정도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부임 초부터 자신이 담당하는 학년의 M. T., 수학여행, 졸업여행, 야유회 등 각종 모임에 반드시 참석했고 이를 즐겼다. 학기 말에는 성적 문제로 학생들을 불러 모아 개별 상담했는데, 평소 박 교수에게 호의적이었던 학생들도 이때는 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다변가인 동시에 달변가였다. 박 교수는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겨 했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들려주었다. 신년에 학생들이 새해 인사를 위해 댁을 방문했을 때는 대접을 잘 받는 대신 그의 이야기를 장시간 들어야만 했다. 박 교수는 교수 부임 후 한 때 면목동 처갓집에 기거했다. 그의 처가살이는 이미 예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천애의 고아로서 자신의 딸과 결혼한 그의 장모님은 신년에 인사차 방문한 대학생 제자 손님들이 세배를 마치면, 많은 양의 설음식과 술을 푸짐하게 대접하곤 했다.

제 III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열로(悅路) 박선영이 개척한 불교교육학 분야는 지금까지도 독특한 학문적 위상을 점하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그의 역량 중 하나가 교육행정가로서의 능력이다. 실제 그의 인생의 전성기는 대학 행정가로서 활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교수는 교수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동국대 대학원 학감(부원장)을 보임했다. 이후 학생처장, 말년에는 사범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 등의 보직을 지냈다. 그가 학생처장으로 재직하던 1984-5년은 학원가의 데모로 혼란한 시기였다. 당시 학교 당국의 입장과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불일치할 수밖에 없었다. 학원가가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고,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점에서 당시 박선영 학생처장 특유의 정의감과 헌신이 빛을 발휘했고, 당시 그의 역량은 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오전부터 시작된 데모가 수습되는 시점은 대략 6시경으로 기억된다. 아직 최루탄 냄새가 매캐한 상태로 남아 있는 초저녁 대학 본부 학생처장실에서 박 교수는 찻물을 마련하고, 강의 차 방문한 대학원생들을 맞이하고는 했다. 당시 강의 교재는 러셀(B. Russel)의 『교육론(On Education)』이었다(Russel, 2011). 그는 이미 여러 번 줄을 그어 읽은 이 책의 내용을 열정적으로 강의했다. 박 교수는 당시 학생처장으로, 매우 분주한 상태였지만, 학교와 집에서 장시간 독서와 집필을 한다고 말하곤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의 후에는 학교 인근 주점에 들러 대학생들과 늦은 저녁 식사와 술을 즐기는 여유도 누렸고, 이 자리에서 학문에 대한 내용 이외에도 그날 일어났던 데모 상황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는 했다.

열로(悅路) 박선영은 보직을 마친 이후에도 연구를 왕성하게 지속하는 학자로 학계에서는 인식되었다. 당시는 대학가에서 보직을 오래 하는 교수의 경우 학자로서의 생명이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이 일반적이다. 처장 보직을 마친 이후 그는 일본의 대학에 방문교수로 다녀오게 되는데, 이 경험이 나중에 그가 일본학자들과 인간적, 학술적으로 교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귀국 후 동국대 교육학과 세미나(1986. 11. 동국관 경영관 M세미나실)에서 일본 불교계와 교육계의 연구 동향을 발표했다. 연구자가 기억하는 그의 강연 내용의 핵심은 일본

불교계는 사회적 활동을 폭넓게 한다는 것과 특히 교육 사업에서 일본 불교계의 뛰어난 활약상을 소개하는 데 있었다.

열로(悅路) 박선영은 1980년 후반 이후 2000년 초까지 여러 편의 한국 교육철학과 역사 관련 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교육철학회 중진 회원으로서 활동한 바 있다. 불교교육학 분야의 논문을 이 시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집필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국내 학계에 불교교육학 연구 학자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신이 스스로 불교교육학 연구를 수행했기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1988년 그는 한국교육학회 분과 학회인 한국교육철학회 회장으로 선임된다. 한 개인이 학회 회장직을 수임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학문 분야에서 보인 업적과 헌신을 학문집단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박 교수는 철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곳에서 불교교육학을 전공했기에, 정통 교육학자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그의 학문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교육학회의 핵심적인 분과의 회장을 역임하고, 교육학계의 중진 학자로 인정받았다.

3. 중·장년이후 : 학회 창립

열로(悅路) 박선영이 한국종교교육학회(KASRE :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Religious Education)를 창립한 것은 1995년이다. 이 시기 그는 55세에 이르러 장년기를 맞이한다. 학문적으로 원숙해졌고, 대내외적으로 학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때이다. 박 교수는 자신이 타협을 모르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말하고는 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탁월한 인물이었다. 본인에 대한 자랑을 은근히 많이 하는 편이었으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매도하는 경우는 없었다. 학회 창립 시기에는 이미 한일 양국의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교육학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를 했다. 어떤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점은 박 교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구자가 알고 있는 그의 첫 번째 지인은 고려대 교육대학원 시절 은사 김정환 교수(고려대 교육학과)를 꼽을 수 있다. 김정환 교수의 엄격한 학자로서의 성격과 강직한 면모는 박 교수와 닮은 점이 있다.

박 교수가 동국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그의 동국대 내 인연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지인들 중 김병욱 교수(동국대 교육학과)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다. 박 교수는 대학자를 존경하는 마음가짐이 강했다. 김 교수는 무불통달의 대학자로서 당시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박 교수의 표현)로서 정평이 나 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은 과 동료 교수인 김 교수를 멘토, 스승으로 삼으면서 그에게 각별한 존경심을 가졌다. 공자 학의 권위자이자 박사과정 지도교수였던 정종 교수(동국대 철학과)는 그와 사제관계의 인연이 있다. 불교계에서는 동국대 총장,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고, 가산문화원을 창립한 이 지관 스님과 교류했다. 수덕사 출신 도반으로는 조계

중 총무원장 범장스님이 있다. 범장스님은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물심양면으로 학회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외에도 교육사회학의 송병순 교수(영남대 교육학과), 교육사학의 이문원 교수(중앙대 교육학과), 한국 무속과 박물관 교육학의 김인회 교수(연세대 교육학과)등과도 폭넓게 교류하였다.

1996년 학회 창립과 30년간의 명맥은 단지 박 교수의 학문적 정열과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학회 창립자 열로(悅路) 박선영과 뜻을 같이 하는 종교계 학자들의 부단한 학문적 교류와 소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종교교육학회는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분야를 연구하는 학회를 표방하지만, 교과적 특성을 띤다. 이 때문에 한국 종교교육 학회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 유교, 원불교, 대순진리교,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무속을 배경으로 하는 학자들이 소속 교과에 입각해서 종교교육학을 연구하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다. 교과적 특성이 강한 학회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면에서 학회 내 이견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종교교육 학회는 지난 30년간 큰 내부 분란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되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동안 모든 학회 모든 구성원들의 하심(下心)과 상생(相生)의 도(道)로 학회를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힘써 왔고, 이는 창립자 박 교수가 학회 창립 초 탄탄하게 놓았던 초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로(悅路) 박선영은 1995년 6월 21일 학회를 동국대 동국관 1층 세미나실에서 창립한 이후 약 15년간 회장과 명예회장 등으로 학회 활동을 했다. 그는 「宗教教育學研究」라는 학회지를 창간하여, 종교교육학 분야에 수많은 연구를 생산했고, 이 분야의 연구자들이 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0년 이후부터는 오랜 지병으로 학회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고, 그의 가정 상황도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박 교수는 결국 2018년 6월 20일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승에서의 삶을 접고, 강북에 있는 4.19 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이후 그를 대신하여 여러 후임 회장들이 회무를 맡아 학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그의 여러 제자들과 후학인 한국 종교교육학회 회원들이 그를 한국 종교학 분야의 선구자적인 인물로 기리면서, 학문 연찬에 임하고 있다.

III. 학문적 업적과 특징

1. 불교교육학

학자로서 열로(悅路) 박선영을 평가할 때 불교교육학 분야의 개척자로서의 공로를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다. 그는 1981년 발표한 『佛敎의 敎育思想』을 통해서 학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 당시 우리나라 교육학계는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한 엘리트 학자를 중심으로 한 서구 교

육학이 주류 학문으로 강력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가 불교교육학을 주창했을 당시인 1980년 초반 이 분야는 완전한 미지의 분야였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박 교수에 의해서 이 분야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잇고 있다. 박 교수 이전에 불교교육학이 학문으로서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하기 어려웠고, 그만큼 박 교수가 주창한 불교교육학의 학문 세계는 독창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²⁾

열로(悅路) 박선영의 『佛敎의 敎育思想』은 한국교육학회의 학술상(1981년)을 수상하였고, 한국교육학회 학계에서 이 저술은 큰 주목을 받는다. 특히 이 저술은 일본학계에서도 관심을 받아 1985년경에 일본어로 번역되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이다. 일본 교육학계의 학계 풍토와 성향, 또한 불교의 주류적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인해 박 교수의 책의 가치를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후일 한국을 방문한 일본학계 인사와 박 교수 본인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일본어판 『佛敎の敎育思想』(1985)의 출간은 박 교수가 일본 교육학계 학자들과 교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학문이 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佛敎의 敎育思想』은 열로(悅路) 박선영의 학문적 특성과 미래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한 저술이다. 이 저술은 오랫동안 준비된 역작으로 파악된다. 이 저술의 상당 부분은 기존에 발표한 논문과 박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보완 발전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³⁾ 이 저술의 불교의 교육사상의 상당 부분은 이상적인 교사로서 불타(佛陀)에 대한 내용에 할애하고 있다. 박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이상적 교사로서의 불타에 대한 시각은 불타라는 존재는 단순한 신앙의 대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에 기초한다. 이 점에서 박 교수는 불타를 인간의 무지(無知)를 깨우치는 위대한 교사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0 후반 이후부터 열로(悅路) 박선영의 학문적 세계는 사회적 메시지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뇌사(腦死), 인권 문제 등과 같은 생활세계의 문제를 불교학적 관점에서 논의하고(BubBo Newspaper, 2004),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이다. 특히 그는 불교적 생명사상에 근거하여 뇌사 문제에 대한 독자적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생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체까지도 인권의 대상임을 주장하고, 뇌사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박 교수의 주장은 생명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

2) 박선영 교수의 불교교육학의 연구 형태는 대상적 차원에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출가자 교육의 측면이다(Park, 1998; 1999). 두 번째는 세속인(재가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여기에는 종교 교육(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3) 그는 평소 교사(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의 석·박사 학위 논문이 모두 교사(관)과 연관된 주제로 작성되었다. 이는 특히 그가 중등 교사 신분을 오랫동안 유지했고,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로서는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한 의미를 지닌다. 그의 주장은 당시까지 다른 종교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불교계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활동은 불교계가 사회적 메시지를 내고, 주목받는 계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박 교수의 대 사회적 실천 활동은 지병으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다.

2. 종교교육학

열로(悅路) 박선영의 학문적 정체성은 불교와 분리될 수 없다. 그는 불교를 신앙으로서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창적이었다. 그는 때로는 불교를 냉정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불교의 전 근대성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박 교수의 불교(학)에 대한 부정적 입장은 불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그의 불교(학)에 대한 그의 입장은 타종교(학)에 대한 관용(tolerance)과는 대조적이다. 이 점에서 박 교수는 자신이 신앙하는 불교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타 종교에 대한 존중 이해의 폭이 넓은 편으로 보였다.

박 교수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다양한 종교학자, 종교 교육학자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해왔다. 그는 유학 이외에도 동학, 증산교, 원불교와 같은 구한말 시기에 등장한 우리의 민족종교(신종교)에 대한 관심도 지대한 편이었다. 그는 불교교육학 이외의 다양한 종교 분야의 제자들을 육성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 지평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박 교수의 종교교육학적 기본 관점은 불교이다. 그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불교적 인간상에서 추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⁴⁾ 이는 열로(悅路) 박선영이 종교 교육학자이기도 하지만, 불교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학문적 경향은 대체로 불교적 진리를 정점으로 하고, 이로부터 연역적 논리를 적용하여 특정한 주제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⁵⁾ 이러한 그의 학문적 특징은 불교를 중심의 연역적 논리를 적용하는 학문적 방법론으로서 당시 일반적인 학문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접근 방식은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나의 교파적 신앙에 입각된 학문적 논리가 특정한 신앙을 견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일수도 있지만, 일

4) 1980년 초 박선영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적 인간상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개념이 불교의 요익중생(饒益衆生)[중생에 대한 이타적 행위 혹은 활동]의 개념에서 나왔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 일로 인해 박 교수는 당시 학계의 거두인 안호상 박사로부터 심한 항의성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

5) 이러한 학문적 경향을 보여주는 예로, Park(1975, 1977) 등이 있다.

반대자들에게 일반화되기에 어려운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박 교수는 비록 자신의 학문의 근본을 불교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교를 초월하는 듯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하나의 교파로서 불교를 보는 신앙적 태도로부터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도 했다.

열로(悅路) 박선영은 타 종교에 대해서는 개방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는 그가 다른 종교에 대한 수용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의 학문적 태도와 입장은 때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신앙인으로서 불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교를 초월하려고 하는 듯한 그의 입장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박 교수가 종교적인 이해의 폭이 넓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신앙하는 불교의 특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불교는 타 종교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폭이 넓고, 관용적이다. 이러한 불교적 특성이 그가 종교적 개방주의의 입장을 갖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3. 서양학문의 연구

앞에서의 언급과는 약간 차원을 달리 하지만, 그의 종교관에 영향을 끼친 해외 학자로는 듀이(J. Dewey)가 있다. 열로(悅路) 박선영은 동양의 학문과 함께 서양학자들의 학문적 견해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 이와 같이 동서 학문을 모두 섭렵하고자 했던 학문적 의욕이 호학(好學)하는 학자로서 박 교수의 면모를 주변에 각인시키는 요인이기도 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박 교수는 특히 듀이의 실용주의적 교육철학과 종교적 관점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⁶⁾ 박 교수는 듀이의 종교관을 적용하여, 불교교육과 불교적 교육을 구분하여 자신의 종교 교육관을 전개하기도 했다.

열로(悅路) 박선영의 학문적 업적 중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는 번역과 관련된 것도 있다. 그는 1997년경에는 일본학자 와다슈지(和田修二)의 《子ども人間學》을 번역하여 우리나라에 소개한 바 있다(和田修二, 1977). 이 책은 본래 네덜란드의 인간학자 랑에펠트(M. J. Langeveld)의 지도 아래 공부한 와다슈지의 인간학 분야의 역작이다. 박 교수가 이 저술을 어떠한 경로로 접했고 번역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자는 알지 못한다. 다만 연구자는 이 번역을 박 교수의 중요한 학문적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저서는 현상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어린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

6) 듀이는 현대사회에서 종교(religion)보다는 종교적(religious)인 것을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서 종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대부분의 기성종교)를 의미하는 반면, 종교적인 것은 종교적 정조,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본 것이다(Dewey 2013). 박 교수의 경우도 듀이의 종교관에 착안해서 유사한 논지로 자신의 불교교육관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술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박 교수도 학문적으로 이러한 측면을 불교와 연계하여 진전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실제로 서양의 현상학과 불교는 매우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연구자는 어린이의 세계를 기술하는 현상학적 시각과 방법론이 그가 추구하는 불교적 세계관이나 인간관과도 상응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시 박 교수의 번역서 출간은 현상학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교육학 전공자들에게도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

IV. 결론 : 학문적 평가

1. 불교적 실용주의

열로(悅路) 박선영의 종교교육학적 사상체계의 첫 번째 기둥은 불교이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불교학자는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그는 한문에 밝았고 불교 경전도 섭렵했으나, 불교적 교리에 함몰되지 않았다. 그는 불교를 현실(교육적 생활세계)에 접목하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⁷⁾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그가 불가에서 속가로 인연을 옮겨왔던 삶의 궤적과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그의 불교학적 접근론은 실용성이 특별히 강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의 생활세계에 관심은 그의 학문적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를 증명하듯이 그는 불교 경전 탐구보다도 종교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 역사학 등과 같은 세속 학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박 교수는 자신이 경험한 세속적 현실은 전통적인 불교적 진리 체계의 일방적 적용만으로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이는 불교 진리 체계가 한계나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복잡다기한 현실 세계를 직시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생각을 펼친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박 교수는 불교의 진리 체계를 현실에 검증하는 방법론적 중요성에 주목한 듯하다. 이를 위해서 그는 생활세계에서 불교적 진리의 재해석이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열로(悅路) 박선영은 이 점에서 불교적 진리에 대한 교조적인 이해보다 생활 세계적 검증을 강조한 학자이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외면한 채, 비본질적, 지엽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본다. 2500년 전 불타도 비록 자신의 설파한

7) 박 교수는 불교교육학의 논지를 펴면서 특히 교육적 생활세계를 강조했다. 이는 불교가 현실 세계와 어떻게 접목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내용이다. 교육적 생활세계라는 용어는 독일교육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필자는 박선영 교수가 독일의 철학에 대한 동경도 갖고 있음을 여러 차례 그와의 대화를 통해 확인 한 바 있다. 박 교수의 논지는 당시 독일의 현상학을 강조하던 동국대 교육학과 의 학풍과 연관되어 있다(Park, 1995).

진리라고 하더라도 대중들이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불타가 진리(법)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보다 큰 역점을 둔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어떠한 진리도 현실(삶의 세계)에서 검증되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코 참다운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박 교수의 불교 교육학적 체계에서도 상당 부분 인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종교적 개방주의

앞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열로(悅路) 박선영은 불교 이외의 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편이었다. 그는 서양의 종교는 물론이거니와 동양과 우리 신종교(민족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한 편파성이나 편견 없이 호혜평등의 바라보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를 종교적 개방주의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종교적 개방주의자로서의 입장은 흔히 말하는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로도 표현된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호혜평등의 차원에서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종교적 다원주의 근저에는 모든 종교가 동일한 궁극성(ultimateness)을 추구한다고 보는 입장이 암묵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 박 교수의 종교적 관점은 엄밀히 말해서 앞에서 언급된 전형적인 종교적 다원주의적 입장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그가 종교적 다원주의를 언급한 것은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Park, 1986). 이러한 점에서 박 교수도 종교적 다원주의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의 입장은 종교적 개방주의에 보다 가까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로(悅路) 박선영의 종교적 개방주의는 불교를 중심축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종교적 다원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자는 박 교수 자신이 불교 신자이면서도, 종교적 개방주의자일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종교적 다원주의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종교 혹은 종교적 신념에 대한 긍정적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종교적 개방주의는 그의 사상체계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고 그의 타 종교(학) 분야에 대한 탐구를 촉진하는 일종의 연마제로서의 역할을 했다.

열로(悅路) 박선영의 종교적 개방주의 사상은 불교교육학적 사상체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 그는 불교의 교육(Education of Buddhism)과 함께 불교적 교육(Buddhistic Education)에 관심이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분류 체계를 그가 제시한 이유는 한국의 현대사회에 중등 교육에서의 종교(불교)교과의 교수(teaching)와 관련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불교의 교육은 불교적 진리를 전파하는데 관심을 두는 일종의 종파적 교육을 의미한다. 불교적 교육은 불

교적인 것 — 예를 들자면, 인간 성장에 도움을 주는 불교적 감수성, 정조 — 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이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듀이가 *Common Faith*에서 주장했던 내용 — 종교(religion)와 종교적인 것(the religious)의 차이 — 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박 교수가 이를 자신의 불교교육학 체계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교수의 앞에서의 불교교육학에 대한 방식은 듀이의 종교교육학적 관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듀이는 학교의 종교교육에서 명백히 종파적 교육을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보기에 박 교수의 종교교육학에 대한 접근 방식은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종교교육학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고려될 수 있다.

3. 과제

연구자는 앞에서 열로(悅路) 박선영의 종교교육학 사상을 불교적 실용주의와 종교적 개방주의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그는 이 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한 불교학자가 아니라, 불교교육학자이며, 종교학을 연구한 학자라기보다는 종교교육학자의 면모를 지닌 인물로 평가된다. 필자가 보기에 박 교수는 종교학과 교육학을 양 날개와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종교학은 박 교수의 이상적 지향으로 사상체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반면에 그에게 교육학은 현실을 투영하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학문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교와 교육의 학적 결합의 박 교수의 학문적 사상체계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박 교수의 여러 학문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학문은 미완성된 채로 남겨져 있다. 이 점에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종교교육학적 사상체계 위에서 새로운 학문적 탐색이 필요한 때이고, 종교 교육적 현실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늘날 학교 종교교육의 여러 난제들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결책이나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오래될 경우 종교학 혹은 종교교과에 대한 논의가 학교 교육학적 차원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열로(悅路) 박선영의 종교 교육적 사상적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박 교수의 종교교육학적 사상과 그의 학문적 연구 방법론이 향후 특히 그에게 영향과 영감을 받은 많은 후배 학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한다. 박 교수의 종교 교육적 사상체계가 폭넓게 연구되고 재해석되어 우리 교육계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s

- Dewey, J. (2013). *Common Faith*. New Haven: Yale Univ.
- Park, S. Y. (1975). Pedagogical Study of the Mahayana Though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Thoughts*, 1, 129-143.
- Park, S. Y. (1977). The Educational Fundamentalism in the Viewpoints of Buddhistic Though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5(1), 30-41.
- Park, S. Y. (1986). Buddhistic Education and Religious Pluralism.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Buddhist Thoughts*, 11, 131-155.
- Park, S. Y. (1995).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1, 35-59.
- Park, S. Y. (1996).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and Religious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 7-21.
- Park, S. Y. (1998). The Meaningful Structure in Ritual of Receiving Buddhist Precepts in Korea and its Educational Significance.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6, 115-138.
- Park, S. Y. (1999). The Educational System of Buddhistic Monk in Korea.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8, 51-78.
- Russel, B. *On Education*, 안인희 옮김 (2011). 러셀의 교육론. 서울: 서광사.
- 박선영 (1981). 佛敎의 敎育思想. 서울: 同和出版社.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Y. (1981). *Educational Thoughts of Buddhism*. Seoul: Dong Wha Publishing Co.
- 박선영 (1983). 佛敎와 敎育社會. 서울: 保林社.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Y. (1983). *Buddhism and Educational Society*. Seoul: Bo Rim Publshing Co.
- 朴先榮 (1985). 佛敎の敎育思想. 東京: 圖書刊行會.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Y. *Educational Thoughts of Buddhism*. Tokyo: Book Publishing Co.
- 박선영 (2004. 8. 10.). 뇌사합법화 특집-전문가 제언. 법보신문. (Translated in English) Park, S. Y. (2004. 8. 10.). Human Rights in the legalization in Brain Death. BubBo Newspaper. Retrieved 2025. 11. 11., from <https://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7>
- 和田修二. 子どもの人間學. 박선영, 노명희 옮김 (1997). 어린이의 인간학. 서울: 아름다운 세상. (Translated in English) Wadha, Suzhi. *Kodoma no ningen-gaku*. S. Y. Park, and M. H. Noh. (trans.) (1997). *Anthropology of Children*. Seoul: Areumdaun sesang.